

미국 관세유예 시한 압박, 對美 협상 총력 대응 전략 점검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제48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3일(목) 10시 30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4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는 미측 관세유예 시한을 앞두고 우리측 대응전략을 최종 점검하고, 통상조약법에 따라 공청회(6.30일) 이후 국회 보고(7.4일)를 앞두고 韓美 관세협상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회의 개요 붙임)

여한구 본부장은 “미측 관세유예 시한이 압박한 가운데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포함, 향후 미측 관세조치 향방이 매우 가변적이고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7월 9일 이후 유예 종료 및 국가에 따라서는 추가적 관세 부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인 바,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여 본부장은 “현재 주요국들도 미측과 경쟁적으로 막판 협상을 집중 전개하고 있는 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언급하고, “관계부처에서도 비상한 각오를 갖고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하는 한편,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향후 정부는 금일 통추위 결과를 바탕으로 “韓美 관세협상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관계부처간 긴밀한 공조 하에 협상 전략을 정비하여, 관세유예 시한까지 미측과 협상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영만 (044-203-5620)
		담당자	사무관	노은정 (044-203-5628)

□ 회의 개요

- (일 시) '25.7.3(목), 10:30~11:30
- (장 소)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 (참석자) (주재) 통상교섭본부장, (위원) 관계부처

* 기재부, 외교부, 국조실, 농식품부, 식약처, 국토부, 특허청, 과기부, 해수부, 환경부, 금융위, 공정위, 방통위, 개보위, 고용부, 관세청, 국방부, 산림청, 복지부, 법무부, 문체부, 중기부 등

□ 상정 안건

- 한미 관세협상 추진계획(국회보고) (산업부)

□ 진행 순서 ※ 모두발언까지 공개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0:30~10:35 (5')	모두발언	통상교섭본부장
10:35~10:40 (5')	안건 보고	담당과장 보고
10:40~11:25 (45')	토 론	참석자
11:25~11:30 (5')	마무리 발언	통상교섭본부장